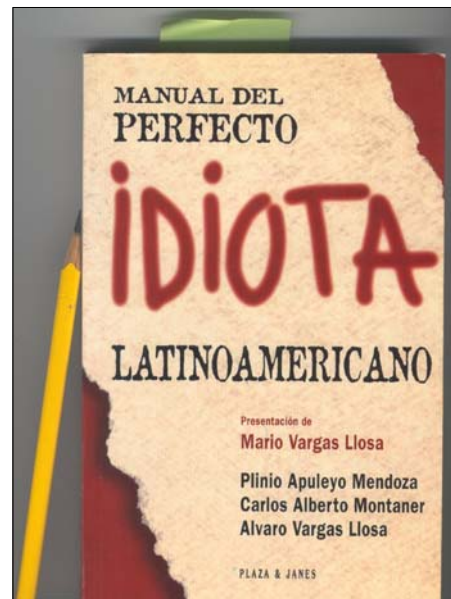


■ 쿠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 지성계

우 석 균

1996년 『라틴아메리카 백치 열전』이라는 책이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쿠바 지도부는 물론이고, 쿠바혁명과 함께 일세를 풍미한 종속이론가와 해방신학자들을 백치라고 조롱하였다. 나아가 혁명을 지지하고 라틴아메리카 태생의 비판적 이론에 심취한 전력이 있는 서구 지식인을 향해서도 백치는 백치끼리 통한다고 싸잡아 독설을 퍼부었다. 확실히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지성계의 바로미터가 되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가령, 라틴아메리카가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겪을 때 종속이론은 라틴아메리카를 편협한 민족주의와 극단적인 사회분열을 야기한 주범으로 비판받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면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자유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쿠바혁명의 지적유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덮어놓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 유산의 핵심이 서구 일방주의에 대한 거부



『라틴아메리카 백치 열전』의 표지. 이 논쟁적인 저서는 콜롬비아 출신의 플리니오 아풀레요, 쿠바 출신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몬타네르, 페루 출신의 알바로 바르가스 요사의 공동 저작으로 서문은 알바로 바르가스 요사의 아버지이기도 한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썼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쿠바혁명의 지적유산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쿠바혁명의 영향을 받은 여러 이론들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소위 ‘실패한’ 혁명과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망각되어야 할 것들이 아니다.

쿠바의 문화 정책

20세기 역사에서 쿠바혁명 이후의 쿠바와 비견될 만한 곳은 1920년대의 파리이다. 이미 낭만주의 시대부터 ‘속물’ 부르주아지가 구축해 놓은 질서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1917년 소비에트혁명에 기대를 걸었다.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파리의 지성들은 부르주아지 질서의 파괴에 나섰다. 가령 아방가르드 예술이 만개한 것도 그 덕분이었다. 아방가르드 예술의 극단적인 실험기법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파괴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스탈린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등장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공산권 전반에 걸쳐 반지성주의가 확산되면서 소비에트혁명과 지식인의 관계도 빼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쿠바혁명이 지식인과 예술가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이들이 쿠바에서 혁명과 예술이, 또 혁명과 지식인이 양립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1960년대의 쿠바는 사회적 사실주의와 아방가르드 예술을 차별하지 않았다. 가령 아르헨티나의 훌리오 코르타사르 같은 환상문학가도 쿠바에서 환영을 받았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지식인들에게도 똑같이 보장되었다. 1967년 창간된



아바나에서 발간된 월간지 《비판적 사유》는 1971년에 폐간될 때까지 총 53호가 발행되었다.

저널인 《비판적 사유》의 활동이 좋은 사례이다.

쿠바가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문화정책을 펼쳤다는 점 역시 지식인과 예술가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가령 혁명정부는 국가가 직접 메세나 역할을 하는 문화정책을 입안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국의 문화 독점, 즉 제국주의적인 문화 침략에서 쿠바 문화와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미국 자본에 밀려 상영관도 못 구해 싸을 턴우

자마자 고사 직전으로 몰린 쿠바 영화, 미국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클럽에서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가던 쿠바 음악 등을 진흥시키기 위해 쿠바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온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쿠바혁명의 가장 뚜렷한 성과로 평가되는 교육과 의료에 필적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각종 문화기관이 설립되어 클래식 음악, 발레, 연극, 영화, 미술, 대중음악 등 ‘고급’ 문화에서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쿠바 국민이 다양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때로 이들 기관은 쿠바를 넘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신영화나 누에바 트로바의 요람이었던 쿠바예술·영화산업기구(ICAIC)가 대표적인 예이다. 출판 분야에서도 쿠바혁명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58년 쿠바에서는 총 100만 부의 책이 인쇄되었을 뿐이지만, 1977년에는 2,400백만 부에 달했다. 더구나 쿠바에서



아바나 소재의 '아메리카의 집' 본부 건물

발행된 책은 일반 대중을 위해 저가에 공급되었다. 그 결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도 책이 상당히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상당수 라틴아메리카 저자가 쿠바를 통해 책을 출간 혹은 재출간하게 되었고, 라틴아메리카 문인들 중에는 쿠바 덕분에 평생 팔린 자신의 책보다 더 많은 부수가 단 1~2년 만에 팔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웃나라의 독자들에게도 작품이 읽히게 되었다고 감격한 이들도 많았다.

쿠바혁명이 라틴아메리카 문화계 전반과 지성계에 끼친 영향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기관이 있다. 바로 '아메리카의 집'(Casa de las Américas)이다. 쿠바혁명 성공 직후인 1959년 4월 28일 창립되었으며,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동지인 아이데 산타마리아(Haydée Santamaría)가 초대 원장을 맡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지식인과 문화인을 한데 엮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 지식인 및 문화인과의 교류를 증진시켰다. 물리력으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던 쿠바로서는 전세계 지식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무척 공을 들였고, 아메리카의 집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할 핵심기관이었다. 물론 1965년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가 원장이 되고, 암브로시오 포르넷 등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1971년 '잿빛 5년'이라는 사상공세

가 시작되면서 초기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점차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집처럼 각종 심포지엄, 예술 행사, 출판 등을 통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예는 일찍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없었다. 가령 아메리카의 집은 에세이, 소설, 단편, 연극, 시 등 5개 분야의 뛰어난 저술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매년 상을 주고 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 이 상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다. 또한 이 기관이 발행하는 동명의 잡지 《아메리카의 집》은 정치, 경제, 사상,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였다.



1979년 아메리카의 집 수상작을 발표하는 문인들. 오른쪽부터 초대 원장 아이데 산타 마리아, 우루과이 작가 마리오 베네데티, 쿠바 작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쿠바혁명과 해방의 담론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세계적인 이론을 배출했다. 종속이론, 해방철학, 해방교육, 해방신학 등이 그것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비서구 기원의 이론들이 한꺼번에 세계적인 주목을 끈 예는 결코 없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은 모두 쿠바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위쪽 왼쪽부터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 질베르투 프레이리, 라울 프레비쉬, 엔리케 두셀, 파울루 프레이리, 카밀로 토레스.

이 이론들에서 주목할 것은 철학도 교육도 신학도 해방(liberación)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종속(dependencia)도 독립(independencia)의 반대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진정한 해방, 진정한 독립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열망은 19세기부터 존재했다. 시몬 볼리바르, 안드레스 베요, 에스테반 에체베리아,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 등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 미완성에 그쳤다는 고민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무지몽매

한’ 하층민에게 미완성의 책임을 돌렸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호세 마르티(José Martí)의 등장과, 푸에르토리코를 합병하고 쿠바를 사실상 식민지로 만든 미국의 제국주의가 가시화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이 시기에 제2의 독립 혹은 해방론은 반제국주의 성격을 명확히 띠기 시작했고, 종속이론, 해방철학, 해방교육, 해방신학 등의 기원이 되었다. 가령 라틴아메리카가 서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은 이미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나 질베르투 프레이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속이론에 영감을 준 라울 프레비쉬의 시각이기도 하다. 해방철학은 엔리케 두셀을 기원으로 하고 있지만, 1950년대 레오폴도 세아(Leopoldo Zea)나 살라사르 본디(Salazar Bondy) 같은 철학자들 역시 정신적 독립에 대한 갈망을 피력했다. 파울루 프레이

리의 해방교육론은 1950년대 브라질 북동부 교육현장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문자 습득과 책 읽기 위주의 서구 교육의 억압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해방의 담론도 쿠바혁명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이론으로 거듭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가령 1세대 종속이론가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혁명 직후의 쿠바 체류 경험에서 ‘저발전의 발전’ 이론을 완성시켰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경우는 쿠바혁명 이전에는 온건개혁적인 성향이였다. 가령, 그는 일찍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처음에는 가톨릭 내부의 온건개혁론에 기울어 있었다. 그러다가 쿠바혁명 이후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대표작인 『자유와 실천으로서의 교육』(1967)과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1970, 우리나라에는 『페다고지』라는 제목으로 번역됨)은 쿠바혁명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방신학은 공식적으로는 1962년에서 1965년까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68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를 통해 태동하였다. 그러나 사제이면서도 1965년 게릴라전에 뛰어들었다가 이듬해 전사한 콜롬비아의 카밀로 토레스 신부가 몸담았던 국민해방군(Ejército de la Liberación Nacional)은 쿠바의 지원을 받은 단체였고, 토레스의 뒤를 이어 무장혁명론을 지지하던 해방신학자도 다수 존재했다. 1970~1973년 사이 아르헨티나에서 형성된 해방철학은 쿠바혁명,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의 지적 분위기 하에서 종속/해방의 구도 하에 서구 철학이 아닌 라틴아메리카의 독자적인 철학을 모색한 것이었다.

해방의 담론들이 대부분 쿠바혁명 이전에 태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쿠바혁명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쿠바혁명이 정치적 전망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쿠바혁명이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것은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열강(쿠바 사례에서는 미국)의 집요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자주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쿠바혁명은 불과 22명이 시작해서 성공한 혁명이었다. 이러한 혁명이 해방을 성취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해방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즉,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종속이론, 해방철학, 해방신학, 해방교육 등의 해방의 담론이 힘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의 담론과 지식의 지정학적

지식은 지정학적이라고들 말한다. 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 강사가 강남에서 뜨면 전국적으로 먹히고, 브로드웨이에서 뜬 뮤지컬은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세태를 말한다. 쿠바혁명이냐 혁명의 지적 유산에 대한 폄하도 그런 세태의 일환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성공한 혁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성공한 혁명 중 천년만년 혁명의 대의를 지킨 혁명은 또 얼마나 되는지. 프랑스혁명을 생각해보라. 허구한 날 사람들 목을 기요틴으로 날려버린 과격한 혁명이었다. 부르주아가 혁명의 과실을 독점함으로써 혁명을 배신하더니 급기야는 나폴레옹의 1인 독재 체제를 낳았다. 궁극적으로는 구체제의 재등장을 막지 못한 실패한 혁명이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 말고는 남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대’혁명이라고 부른다. 그 구호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정의로운 가치, 소중히 간직해야 할 지적 유산을 남겼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장하다는 평

가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가 서구의 주요 국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후한 평가가 가능했을까? 저가품이나 모조품 취급받는 라틴아메리카산(産) 해방의 담론이 일세를 풍미했다는 사실이 더 대단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해방의 담론이 과연 그렇게 과격한 것인지, ‘해방’이라는 가치가 일시적인 지적 유행쯤으로 취급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1960년대의 세계를 돌이켜보자. 마틴 루터 킹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물론 흑인의 진정한 해방이 이룩될 날을 꿈꾼 것이다.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체 게바라에게만 영감을 준 것이 아니었다. 상당수 서구 지식인들도 그 취지에 공감했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조차 반전운동을 일으켰다. 프라하의 봄은 소련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1968년 파리 학생시위는 온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만 같은 냉전체제에서의 해방을 꿈꾸었다. 전 세계가 해방을 꿈꾸는 시절이었고, 쿠바 혁명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뿐이다. 라틴아메리카인들만 거리에서 시위하고 해방 전쟁에 뛰어들던 시절이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의 담론도 보편성을 지닌 담론이었다. 더구나 서구는 프라하의 봄과 파리 학생시위가 있었던 1960년대를 유토피아를 꿈꾸던 아름다운 시절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의 담론 역시 아름다운 것이리라.□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저서는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 (2005), 『잉카 in 안데스』 (2008) 등이 있다.
